

#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7.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 의견 .....	12

## I. 일반개황

면적	112천 km <sup>2</sup>	G D P	195억 달러 (2014년)
인구	8.3백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2,361 달러 (2014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단일공화제)	통화단위	Lempira(La)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21.1 (2014년)

- 1821년 9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온두라스는 중미 카리브연안에 위치하여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농업이 GDP의 14.0%를 차지하는 전통적 농업국가이나,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보세가공업 장려 정책으로 커피, 바나나와 함께 의류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음. 그러나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기계 장비,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 높은 빈부격차와 빈곤율, 치안불안 등은 온두라스내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함.
- 온두라스는 경제중심 실리외교를 추구하며, 중미통합체제(SICA) 가입, 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 체결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sup>f</sup>
경제성장률	3.8	4.1	2.8	3.1	3.3
재정수지 / GDP	-2.8	-4.2	-7.6	-2.7	-1.9
소비자물가상승률	6.8	5.2	5.2	6.1	4.1

자료: 온두라스 중앙은행, IMF.

#### □ 민간소비 및 농업생산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 3.3% 전망

- 온두라스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2014년 기준 총수출의 44.7%, 수입의 48.1%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경기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2012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 2009년 군부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대외원조의 재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1%까지 회복되었음.
- 2013년에는 커피녹병(Leaf-rust disease)\*에 따른 커피 생산 부진으로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미국 경기 상승세, 수출 회복에 힘입어 3.1%로 경제성장세가 개선되었음.
  - \* 곰팡이균에 의해 커피 잎이 시들어버리는 현상으로, 2013년 중미 지역 커피생산에 큰 타격을 입힘
- 2015년에는 IMF 차관과 관련한 재정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정부지출은 제약될 전망이나,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및 농업생산 증가 등으로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 전력부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축소 전망

- 온두라스는 낮은 소득 수준, 취약한 세수 기반 등으로 2001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부지출 확대, 적자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7.6%까지 증가함.

- 2014년에는 1월부터 발효된 세제 개혁으로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20% 증가하고, 2013년 GDP 대비 1.8%를 기록하였던 국영전력회사 ENEE의 적자 규모가 1.3%로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7%까지 축소됨.
- 2013년 11월 온두라스 국회는 매출세 인상(12%→15%), 연료 수입세 인상, 최저한세 및 배당세 신설, 면세대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혁을 승인하였고, 동 법안은 2014년 1월 발효되었음.
- 2015년에도 온두라스 정부는 ENEE의 재정강화 및 에너지 감독기구 신설 등을 포함한 전력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9%로 전망됨.

#### □ 저유가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4.1% 전망

- 온두라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과 수입물가에 크게 연동됨. 2012년에는 고정환율제에서 크롤링 페그(Crawling Peg)제\*로의 전환에 따른 렘피라(La)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를 기록함.
  - \*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 또는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단기적으로 고정된 기준환율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전에 정해진 환율수준에 수렴하도록 기준환율을 주기적으로 미세조정하는 제도
- 2013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세가 이어졌고, 2014년에는 세금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1%까지 상승하였으나, 이는 중앙은행의 관리목표 물가수준 범위(6%±1%p)이내임.
- 2015년에는 2분기 기준 3.6%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6.2%를 기록하였던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지는 저유가 기조 등에 따라 2015년 연간 기준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자연재해 및 환경적 위험 노출로 자연재해 취약국 1위 기록

- 온두라스는 카리브 해의 주요 태풍 경로에 위치하여 태풍 피해가 잦으며, 지진, 화산활동 역시 발생하는 등 각종 자연재해 및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제 환경단체인 Germanwatch의 2015년 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1994년부터 2013년간 자연재해로 연평균 총 309.70명 및 10만명당 4.60명이 사망하였으며, 세계 1위의 자연재해 취약국으로 꼽힘.

#### □ 부정부패 및 마약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은 경제발전의 저해요소

- 온두라스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 조항을 갖추고 있으나, 관료의 부정부패가 만연함.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도 온두라스는 조사대상 175개국 중 126위로, 과테말라(115위), 멕시코(103위), 엘살바도르(80위) 등 여타 중미 국가 대비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온두라스는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이 미국으로 밀매되는 중간경로에 위치함에 따라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이는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나. 성장 잠재력

#### □ 넓은 국토 면적 및 천연 자원 보유

- 온두라스의 국토면적은 112천 km<sup>2</sup>로 중미 국가 중 니카라과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납, 아연, 금, 은, 구리 등의 광물자원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으나,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잠재력이 높음.

#### □ 섬유,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보세가공수출(Maquiladora) 발달

- 온두라스 정부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지대법(ZOLI), 수출

가공산업단지법(ZIP) 제정 등 보세가공수출업을 장려하였으며, 고급 기술력과 북미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에 힘입어 동 산업은 온두라스의 외화·고용·투자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부상함.

- 그러나 치안 불안, 비효율적 행정절차, 높은 임금상승률 등으로 온두라스 내의 임가공업체가 인접국인 니카라과 등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2014년 12월 1.9억 달러 규모의 IMF 신규차관 도입

- 2010년 10월 온두라스는 IMF와 18개월간 2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년 3월 만료됨.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신규차관 도입을 위해 IMF 권고사항인 거시경제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4년 12월 IMF는 동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1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 및 0.8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대기 차관(Stand-By Credit Facility)을 승인하고, 경제개혁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함.
- IMF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축소, 최소 외환보유액 유지,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 등 온두라스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의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15년 3월 실시한 첫 프로그램 평가 결과 외환보유액,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국영전력회사의 GDP 대비 적자 비중 등 프로그램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음.

### □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 시장환경 조성으로 FDI 확대 추세

- 온두라스는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통신, 전력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사전허가 요구), 정부 발주사업 참여시 현지기업 지분율(51%) 조건 철폐,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 시장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함.
- 2014년 FDI 유입액은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확대되었으며, 주요 투자국은 멕시코(2억 달러), 미국(1.5억 달러), 캐나다(1.1억 달러) 순임.

- 2014년 1월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파트타임직 고용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5월에는 외국인투자 및 무역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Pro-Honduras"를 시행함.
- 다만, 2014년부터 과세대상 소득이 백만 렘피라 이상인 경우 사회공헌세 5%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은 외국인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sup>f</sup>
경 상 수 지	-1,408	-1,587	-1,655	-1,444	-1,304
경 상 수 지 / G D P	-8.0	-8.6	-9.6	-7.5	-7.2
상 품 수 지	-3,149	-3,012	-3,147	-2,998	-3,034
수 출	7,977	8,359	7,806	8,072	7,931
수 입	-11,126	-11,371	-10,953	-11,070	-10,966
외 환 보 유 액	2,750	2,495	2,982	3,432	3,392
총 외 채 잔 액	4,208	4,861	6,709	7,180	7,921
총 외 채 잔 액 / G D P	23.9	26.4	36.5	37.1	40.4
D . S . R .	8.0	15.2	15.6	14.6	15.3

자료: 온두라스 중앙은행, EIU, OECD.

#### □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며 2015년 상품수지 적자 30억 달러 수준 전망

- 온두라스는 의류, 커피, 바나나 수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기계 및 운송장비, 원자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에는 국내경기 위축,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커피 생산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수출규모가 더 큰 폭으로 축소되며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됨.
- 2014년에는 커피, 팜유, 새우 등 전통적 농업 품목의 수출확대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2015년에도 유가하락이 지속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0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가 전망됨.

## □ 경상이전수지 확대로 2015년 GDP 대비 경상적자 비중 7.2% 전망

- 해외 이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 국제기구 원조 등을 통한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 서비스, 소득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 2013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소폭 확대, 치안 불안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외국인투자자들의 과실송금 및 외채이자 상환액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9.6%까지 확대됨.
- 2014년에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확대를 통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된 7.5%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월평균수입액의 3.5배까지 외환보유액 확대

- 2012년 IMF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SBA) 만료,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대외지급비용 증가로 2012년 외환보유액은 25.0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2.6배)를 기록함.
- 2013년에는 3월(금리 7.50%, 만기 2024년)과 12월(금리 8.75%, 만기 2020년)에 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Eurobond) 발행(총 10억 달러)에 성공하면서 외환보유액이 29.8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3.1배)까지 확대됨.
  - 2013년 3월 발행된 유로본드의 경우 온두라스 최초의 국제채권이며, 동국의 낮은 국제신인도로 여타 중미 국가들의 국제채권 금리(평균 5.2%)에 비해 높은 금리가 책정됨.
- 2014년에는 외환매입, 관광산업수입, 외부 기부금 유입 및 해외거주자 본국 송금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34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3.5배)까지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 공금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대두로 대통령 퇴진요구 시위 발생

- 집권당인 국민당(PN)은 2010~14년 간 3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연금(IHSS)의 보전 예산 횡령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국회 의장역을 수행하였던 올란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2015년 5월 이후 수도 테구시갈과 위주로 전개되고 있음.
- 2015년 6월초 올란도 대통령은 일부 자금이 2013년 대선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은 부인함.
- 6월 26일 시위에는 2만명 이상이 집결하였으며, 시위대는 대통령의 사임 및 동사건 수사를 위한 국제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올란도 대통령은 국제위원회 설립을 반대하며 대국민 담화를 제안하였음.
- 다만, 대통령에 대한 국내 주요언론 및 사법부의 지지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정치적 안정에 큰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소득 양극화 심화 및 빈곤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2013년 온두라스의 지니계수는 0.57로 중미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빈곤층 비중이 64.5%(농촌 68.5%, 도시 60.4%)로 높아 소득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심각함.
- 정부-빈곤층 간 소통부재,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온두라스의 소득양극화 심화
- 한편, 온두라스의 실업률은 2012년 4.9%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4년 4.3%를 기록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임.

##### □ 높은 피살률 등에 따라 치안불안 심각

- 온두라스의 피살률(Murder rate)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66명으로 전년대비 13명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Tegucigalpa 및 서북부 공업 도시인 San Pedro Sula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꼽힘.

- 올란도 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범죄예방, 치안강화를 위한 군병(PMOP)을 창설하였으나, 군대의 과거 인권유린문제 및 2009년 군부 쿠데타 참여 등을 이유로 야당인 자유당의 지지를 얻지 못함.

### 3. 국제관계

#### □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제유대 강화에 집중

-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미 통합체제(SICA, 1993년 2월 발효), 미국-중미공동시장 5개국 및 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DR-CAFTA, 2006년 발효) 등 다자간 정치·경제협력체를 통해 경제적 결속강화를 추진 중임.
- 온두라스는 중미-EU 제휴협정(정치, 개발협력 및 FTA에 관한 포괄협정) 등 여타 선진국과의 무역 진흥도 추진하고 있음.

#### □ 경제협력 등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과도 우호적 관계 유지

-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결성한 북부삼각연합(Northern Triangle)을 통해 상품, 서비스는 물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며 역내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미 번영을 위한 전략적 제휴(Alliance for Prosperity) 정책의 일환으로 온두라스-과테말라 간 관세동맹(Customs Union) 체결(2015.2월)하여 2015년 말까지 유지키로 함.
- 마약 및 폭력 문제에 대한 역내 공동대응방안 마련은 각국 정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부진한 상황이나, 온두라스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안보관련 원조를 받으며 마약범죄 관련 문제에 협조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부채수준은 높으나, 부채구성은 양호

- 온두라스 채무구제 수혜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2013년 67억 달러, 2014년 72억 달러로 외채가 급증하는 등 타 중미국가 대비 부채수준이 높은 편이나, 양허성 차관 비중이 높아 단기외채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각각 15.6%, 14.6%에 불과함.
- 온두라스는 고채무빈곤국 채무구제제도(HIPC Initiative, 2005년 졸업) 및 다자은행 채무구제(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를 통해 외채가 탕감, 리스케줄링됨.
- 2015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총 4.8억 달러(단기 1.1억 달러, 중장기 3.7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2백만 달러로 전체의 0.46%임.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4. 10)	6등급	(2013. 10)
S&P	B	(2013. 8)	B+	(2012. 6)
Moody's	B3	(2015. 5)	B3	(2014. 2)

\* Fitch는 동국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하지 않음.

- OECD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온두라스에 대해 2006년까지 최저 등급인 7등급을 부여하였으나, 개선된 경제 및 정치적 여건을 고려하여 2007년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13년 8월) 및 Moody's('14년 2월)는 치안문제 지속,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외채누적 등으로 온두라스 국가 신용등급을 각각 B, B3로 한 단계 하향조정한 이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15년 5월 Moody's는 온두라스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정부 유동성리스크 감소 등을 감안하여 국가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함.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온두라스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56	124	114	전선, 자동차, 고무제품
수 입	84	54	51	기호식품, 아연광, 알루미늄
합 계	240	178	165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62년 4월 1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70), 투자보장협정('00),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00), 경제 과학기술협정('10)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양국간 무역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1.7억 달러를 시현함.
  - 특히 온두라스로부터의 수입 품목 중 아연광과 고무제품이 각각 56.5%, 26.9%로 감소함.
- 2014년 3월 말 누계기준 대 온두라스 직접투자 규모는 총 47건(신규법인수), 1.1억 달러(투자금액)이며, 특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억 달러로 90.2%를 차지함. 제조업종은 대부분 섬유제품 제조업 및 의복임.

## V. 종합의견

- 2014년 온두라스 경제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경기 상승세, 커피 생산 회복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도 3.3%의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온두라스는 정부는 2014년 12월 IMF 차관 도입이후 재정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력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공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개선될 전망이다.
-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해 GDP 대비 외채비율이 증가 추세이나, OECD ECA 승인금액 중 연체비율이 낮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단기 외채상환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조현수 (☎02-3779-5712)

장은진 (☎02-3779-5716)

E-mail: [hsc@koreaexim.go.kr](mailto:hsc@koreaexim.go.kr)

[eunjin@koreaexim.go.kr](mailto:eunjin@koreaexim.go.kr)